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7 0102

Vol. 121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특집_인하대병원을 이끄는 차세대 젊은 의사 2017 정유년(丁酉年) 건강지킴이_암/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수칙 Health Report_ '유방암' 인식 바꾸기





인하대병원

Jan
+
Feb 2017 Vol.121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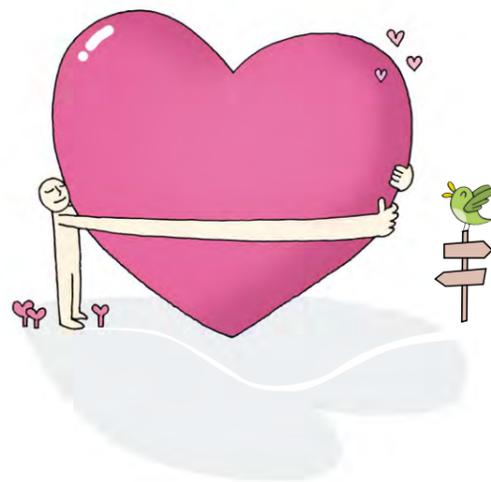


이해의 손길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읽어 주세요

그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당신의 따뜻하고 참된
'이해의 손길'이
어둡고 가팔진 산길에서도
사랑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눈'이 되어 줄 거예요



정채봉 | 시집 '사랑을 묻는 당신에게' 중에서 | 샘터

건강 한 걸음	04 신년사	'기획'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06 특집 	인하대병원을 이끌 차세대 젊은 의사
	07	감염내과 권혜운 교수
	08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류마티스내과 정정희 교수
	10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12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교수/호흡기내과 김정수교수
	14 정유년 건강지킴이	암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수칙+ 건강검진
	1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사랑 두 걸음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11 - 인현동
	22 Special People	국민 성우 맥가이버 배한성
	24 INHA Post	하늘을 훨훨 나는 드론
나눔 세 걸음	26 Health Report	'유방암' 인식 바꾸기
	28 Change the INHA	소중한 생명 살리는 손길
	30 INHA Focus	SNS 알림/진료예약 서비스
	32 인하심포	Happy plus - 따뜻한 세상에서...
	34 톡톡 약물상담	갑상선 수술 후 호르몬제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
	35 병원 탐방	마디척정형외과 배주환·이종민 원장
INHA NEWS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 소식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39 Info Desk	건강교실, 공개강좌, 파랑새 소식



표지_ 차세대 인하대병원을 이끌어 갈 젊은 '내과의'와 함께!!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이 가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을 되돌아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신설공사, 호흡기공공전문 진료센터 신설공사 완료 후 진료 시작, 개원 20주년 행사, 병동부 휴게실 개선공사, 전동침대 변경 등 이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또한 작년 못지않게 많은 변신과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3층 음압 병실 옆으로 40병상 증설 등 입원환경개선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모든 병동의 리모델링 공사와 외래 재배치 공사, 그리고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환자와 내원객 및 교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으시겠지만, 우리병원의 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년 의료계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 최저 수준 경제 상황 및 소비 심리악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많은 걸림돌이 우리 병원 계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은 역으로 올해 최대의 시설 및 의료장비 투자를 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병원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병원경영 패러다임은 환자중심 진료시스템으로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환자 중증 난이도에 따른 의료행위 상대가치 상향조정, 의료 질 향상 지원금 지급 및 평가에 의한 의료비용 차등지급 등으로 중증환자 진료시스템 재정비 및 의료 질 향상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옛날처럼 뒤처지다가 도태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교직원 여러분 개원 후 20년 동안 놓쳤던 기회라는 선물이 20년 만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라는 선물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병원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의료원장 김영모

INTERVIEW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의 기본, 내과는 의학 자체이다” 차세대 인하대병원을 이끌어갈 젊은 ‘내과의’와 함께!!

인하대병원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젊은 7인의 내과 닥터가 있다.
매 순간 최선의 방법을 찾고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무한 가능성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다. 열정을 쏟아내며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들의 스토리를 담는다.

기획_김옥주 차장/홍보팀 진행·정리_이정희 에디터 사진_송인혁 실장/다부스튜디오

2017 NEW START



- 01 감염내과 권혜윤 교수
- 02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
- 03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
- 04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
- 05 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 06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교수
- 07 호흡기내과 김정수 교수

따뜻한 마음 없으면 진료의 본질을 잃을 수 있어 열의 원인 찾아, 퍼즐 맞춰내는 명탐정 같은 의사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 예방이나 완치가 어려운 말라리아, HIV, 뎅기열 등과 같은 질병의 예방약 또는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은 권혜윤 교수다. 자신의 역량이 선교를 위해 사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한다. 그리고 열이 나는 원인을 찾기 위해 숨은 퍼즐을 맞춰내는 명탐정과 같은 과가 감염내과라고 덧붙인다.

감염내과 권혜윤 교수

01



을 찾아서 사용하면 환자가 좋아지는 감염학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돌이켜보면, 본과 시절, 가장 재미있었던 기초 과목도 기생충학과 미생물학, 면역학이었던 것 같다.

기억에 오래 남는 환자는 안타깝게 사망하신 경우이다

30대 젊은 감염성 심내막염 여성 환자분을 전임의 1년 차 때 진료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판막치환술 수술 후 사망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 외에도 HIV 환자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30대 남자 HIV 환자분은 진단 당시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과 림프종(lymphoma)이 동반되어 어렵게 항암 치료 후 현재 림프종은 부분적으로 관해(완화)된 상태로 외래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완치된 상태는 아니지만, 처음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외래에서 볼 때 기쁜 마음이 든다.

새해에는 더 밝게, 환자 진료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몸에 더 배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열심을 다하지 못했던 연구에 더욱 열심을 내길 소원한다. 이 모든 것이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며 한 해를 출발하고 싶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으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하게 될 때 본질을 잃게 되는 것 같아 환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싶다.

권혜윤 DR.'s 한줄 tip

성인들도 챙겨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접종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대다수의 감염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된다는 것 또한 큰 매력

감염내과는 여러바이러스, 세균, 진균에 의한 감염병과 해외 유입 감염병, 불명열, HIV/AIDS 질환 및 병원 감염 관리 등 다양한 방면의 질환을 진료한다. 다른 과에 비하여 협진 환자 진료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다.

내과 전공의 2년 차 때 감염내과 주치의를 하게 되면서 감염내과가 systemic 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다양한 질환을 접하면서 적절한 약

질환 진단을 위해 모든 검사 결과 놓고 토론과 시간을 두고 진단명 내려야 한다!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는 외래진료환자들과 더 많이 이야기 나누는 노력과 함께 2017년을 시작했다. 전공의 2년차 때 한 교수님의 권유로 내분비내과에 첫발 내딛었다는 그녀는 환자의 소소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바른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

02



당뇨병 및 기타 내분비질환 전반 이상으로 발생하는 각종 호르몬 이상을 다루는 진료과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 내과 의사의 일

내분비내과의 경우 질환 진단을 위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결과를 하나로 모아놓고 가장 근접한 진단명을 내리는 데에 수많은 토론과 시간 소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학문적 탐구를 하여야 한다.

만성질환을 다뤄야 하므로 환자와의 유대관계 중요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을 앓은 환자가 당뇨발이 발병하여 입원하였을 때가 기억난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했다. 서로 믿음을 갖고 그 과정을 인내하였고 치료를 좋은 결과로 끝낼 수 있었다. 만성질환을 다뤄야 하는 의사로서 환자와의 유대관계가 치료 종결에 도움이 되어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제공해야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과 인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작은 증상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연구 활동도 열심히 하여 내분비내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첫날을 시작했다.

안성희 DR.'s 한줄 tip
체중관리, 햇빛 많이 보고 운동하기

내분비내과, 호르몬 분비 기관의 건강을 유지시키다!

내분비내과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와 균형 유지에 중요한 각종 호르몬 분비 기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과이다.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혈관으로 분비된 이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어 각종 신진대사와 생식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갑상선결절, 갑상선암과 같은 갑상선 질환과 부신 질환, 골다공증,

모든 환자에게 만족은 없겠지만, 많은 환자에게 ‘잘 치료받고 있다’라는 만족을!

인터뷰를 앞두고 의사가운을 막 입었던 초심의 기억을 더듬어 본 정경희 교수다. 내과 전공의 1년 차 시작을 류마티스 내과로 했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장 재미있었고 만족도가 컸던 때로 남아있다. 가끔 힘들어도 첫 시작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레고 좋다는 그녀와 함께했다.

03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



나를 남으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 나를 나로 알게 치료하다!

류마티스 내과는 자가 면역 질환(전신경화증,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혈관염, 염증성 근육염)과 관절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통풍, 척추관절 질환) 등을 진료한다. 자가 면역 질환은 처음에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나의 면역 체계가 나를 남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류마티스 내과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이 아닌 나를 나로 생각하게 하는 치료하는 과’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들은 의사가 나를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의사들은 아주 많은 환자를 기억한다. 한두 명의 환자가 아니라 질환별로 모든 분이 떠오르는데 짧은 감사의 한마디를 해주실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Do no harm(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은 늘 마음에 담고 환자를 마주한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관절이 아프면 내과를 아직은 잘 떠올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만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상당수의 관절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겸손한 소망으로 새해를 열다

새해가 시작된 느낌이 별로 없이 2017년을 맞이했다는 정 교수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최근 끝난 드라마 마지막 편을 다시 보면서 ‘의사는 저래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삼 물어 두었던 스

무 살 때의 소중한 마음을 꺼내며 첫사랑 같은 설렘도 있다. 모든 환자에게 만족은 없겠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내가 잘 치료받고 있다’라는 만족을 주고 싶다는 겸손한 소망을 남긴다.

정경희 DR.'s 한줄 tip

관절 건강을 위해 햇빛을 받으면서 걷기!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섭취하면서 관절 운동 능력도 향상 시킬 수 있다. 단, 빙판길은 조심!!!

약물 의존보다 병변 제거하는 내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 환자에게는 따뜻함, 병에게는 냉철한 판단력

병을 빠르게 알고 옳은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바른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다. 그의 일정에는 '요일'만 있다. 진료 있는 날과 없는 일, 내시경하는 날과 외래진료 날 등으로 빼곡히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은 필수, 병을 대할 때의 냉철한 판단력은 기본이라고 전하는 그의 부드러운 말씨에 속까지 훈훈해진다.

소화기내과 박진석 교수

04

내시경의 발달로 외과 의사와 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매력

내과를 선택했을 때부터 소화기내과에 관심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소화기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공하게 된 이유이다. 현재는 췌담관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양성, 악성 담관 폐쇄 및 췌장염, 췌장암에 대하여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및 EUS(내시경적 초음파)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 등은 내시경적 치료로 완치하고 있으며 수술적 절제가 되지 않는 소화기암 환자도 내시경적 치료로 생존율을 향상 시키고 있다.

약물 의존보다 병변을 제거하는 내과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요즘이다.

연구의 결실을 만들어 준 미래를 꿈꾸었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

치료가 잘 되어 퇴원하는 분들과 마주칠 때면 반겨 주셔서 감사해 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 췌사성 췌장염으로 내원하여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최선을 다하여 두 달 이상 입원 치료를 하였지만, 병의 악화로 돌아가셨다. 힘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웃으며 퇴원 후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던 환자분이라 여전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최선을 다하였지만 현재까지의 치료로는 역부족임을 절실히 느꼈고,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여 급성 췌장염 환자의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준 환자이다.

2017년 인하대병원은 새로운 도약의 위치에 있다

병원의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새로운 과의 신설, 새로운 직종의 발견 등으로 지난해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2017년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생각된다. 열심히 환자를 보고 연구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박진석 DR.'s 한줄 tip

금연, 금주, 다이어트 모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불편이 느껴질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몸이 보내는 평범한 듯싶은 신호가 때로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많이 공부하고, 더 나누고 싶은 새해 바람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투석 시 건강한 삶으로!

인간의 장기 중 유일하게 두 개! 강낭콩 모양에 팔색 이어서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 없지만 '투석'이라는 대체 방법이 있다. 신장을 살리고 대체 작용하게 하는 등 원가를 해 줄 수 있다는 매력이 황선덕 교수의 마음을 잡아당겼다.

05

신장내과 황선덕 교수

어간다면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교육하고 시행한다. 주변의 가족에게 받는 생체 신장이식이나 뇌사자에게 신장을 공여받는 뇌사자 신장이식 등을 통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의 개선과 생명 연장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

최근 느낀 보람은...

환자의 아버지에게서 혈액형이 다름에도 성공적인 신장이식

최근에 있었던 젊은 SLE환자(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기억에 남는다. 치료 중에도 신장기능이 감소되고 부종이 심해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결국 투석 치료를 해야 했다. SLE의 activity가 감소되는 기간 동안 복막 투석을 위해 복막 도관을 직접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복막 투석을 하였다. 이후 6개월 뒤에 환자의 아버지에게서 혈액형이 다름에도 신장이식이 성공적으로 되어 보람을 느꼈다. 환자의 모든 감사 인사는 아무래도 의사에게 가장 큰 에너지가 된다.

드러나지 않을 뿐, 생명이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과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치료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환자들의 생명이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내과이다. 많은 투석 환자들이 신장이식을 기다리지만 기증되는 신장은 적다. 모두가 신장이식을 잘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장내과라는 학문을 계속 배우고 환자에게 나누고 싶다.

황선덕 DR.'s 한줄 tip

신장내과에서 중요한 것은 혈압과 관련된 '소금'!! 그리고 비만 역시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저염식과 환자의 대사보다 많은 영양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 장기간 환자들의 예후에 도움이 된다.



신장 질환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신대체요법의 과정까지가 진료범위

신장내과의 일반적인 진료단계를 보면 '혈뇨와 단백뇨 - 검사 진행 - 신장 문제 여부 조직검사 시행 - 확진 및 치료 진행'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급·만성 신부전'으로 발전하면 신장 조절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몸에 수분이 많아져 부종, 호흡곤란 등이 오거나 전해질 불균형, 빈혈 등과 같은 합병증을 관리하는 범위까지가 신장내과의 진료범위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투석이라는 신대체요법으로 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좋은 의사가 될수 없다 냉정한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액티브 한 외과 의사의 손이 쉬지 않고 부단히 움직이며 환자를 살리듯 우리 내과 의사의 눈과 정신은 뜨겁게 열려 있다. 환자의 안쪽 깊은 곳까지 훑으며 예측하고 앞서 나가는 치료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학생 시절부터 이른바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내과가 좋았고, 수련의 과정 중에도 내과에 대한 선망이 변하지 않았다는 조진현 교수다.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교수

06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뇌하는 곳

혈액종양내과는 말 그대로 백혈병부터 빈혈까지의 모든 혈액 질환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고형 종양을 진료한다. 사실 모든 암이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혈액종양내과여서 조 교수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항상 고뇌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또 '공감과 냉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최선을 다한다.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좋은 의사일 수 없고 또한 냉정하게 평



가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또한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밝고 희망적 의지와 고전적 항암 조합의 승리

전이성 유방암으로 그동안 쓸 수 있는 모든 항암제를 다 써본 여자 환자가 있었다. 신약까지 다 써본 상황이라 마지막으로 정말 목숨 걸고 고전적인 강한 항암제를 조합하여 쓰면서 사실 기대는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는 힘든 가운데도 항상 밝았고 남편은 환자의 상태가 좋으나 나쁘나 씩씩하게 인사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항암이 거듭되며 갖은 부작용이 왔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정말 의연히 참아왔고 암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이후로 6년이 넘는 같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힘들고 희망도 적은 치료를 이렇게 밝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 환자와 남편이 기억에 남고 또 보람 있는 일로 남는다.

대학병원 의사의 세 가지 책임

대학병원 의사에게는 크게 3가지 책임이 있다. 환자 진료, 연구 및 수련, 후배들에 대한 교육이 그것이다. 모두 쉬운 것이 아니지만 바라건대 3가지 책임을 두루 다할 수 있길 바란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나는 올해 연구에 더 매진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 노력이 양질의 환자 진료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

조진현 DR.'s 한줄 tip

담배 피우지 말고 운동하시고 항상 밝게 사시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환자와 의사,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 인생의 종착역에서 신뢰 있는 당신의 의사로!

자신의 꿈은 지극히 세속적(?)이라 밝히기 꺼린다는 김정수 교수다. 기막힌 의술로 환자를 살리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받는 것이 모든 의사의 꿈일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대부분 환자는 폐렴으로 사망한다. 중증도 높은 환자의 곁에서 인생의 종착역을 지키는 것이 김정수 교수의 진료이다. 진정성 있는 사명감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 아닐까.

07

호흡기내과 김정수 교수

호흡기 분과 내에서도 내과계 중환 전담의

호흡기 분과 내에서도 전문분야가 나뉘는데 결핵, 감염성 폐질환, 기도질환, 간질성 폐질환, 폐암, 중환자 의학 등으로 크게 분류한다. 그중에서 중환자 의학을 공부했고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의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호흡 보조 장치가 필요한 중증 폐질환 환자나 혈압 및 맥박이 불안정한 폐혈증 쇼크 환자를 맡고 있다.

내과 분과 중 중증도가 높고 불안정한 환자를 자주 접할 수 있는 분과라는 이유로 현재의 진료과를 선택했다.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좋은 결과를 자주 이뤄 낼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

치료 중 돌아가신 분이 더 생각나...

사실 좋아져서 퇴원한 환자는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 돌아가신 환자분들이 주로 기억하는데 이진 나쁜만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체외 순환장치를 2주 이상 유지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기억에 계속 되새겨진다.

'환자-의사'도 신뢰가 더 중요한 인간관계

환자와 의사도 인간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가 신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수 DR.'s 한줄 tip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울거울 꼭 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만만히 생각할 질환이 아닙니다.





암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 건강생활 수칙과 조기검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 인구의 1/3은 예방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1/3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 생활수칙 실천과 조기검진**만으로도 암 질환의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값비싼 좋은 음식과 몸에 좋다는 약물을 찾아 나서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노력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_ 이문희 교수 / 혈액종양내과

1. 금연하기

금연은 건강지킴이입니다. 본인이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을 하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 위험을 감소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건강한 식생활 찾기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결국 암을 발생시킵니다. 암 발생 중 식생활 및 영양에 의한 요인이 20~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 짠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불에 구운 음식은 피하세요.
- + 붉은 육류나 육가공품의 섭취를 줄이고, 붉은 고기 대신 흰살고기인 오리, 닭고기를 추천합니다.

3. 한두 잔의 술도 피하기!

- + 꼭 마셔야 한다면 하루 한두 잔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 + 술을 줄이기 위한 자신만의 동기를 만들고 주변에 알려 절주 환경을 조성하세요.
- + 술을 대신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 + 스스로 계획 수립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나 알코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도록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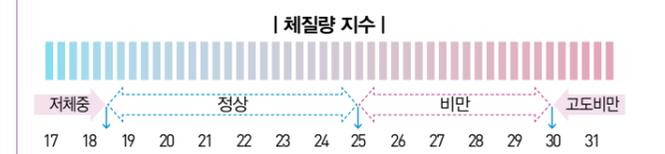
4. 적절한 신체 활동하기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합니다.

- +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드세요.
- + 비활동적인 습관을 줄이세요.
- +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찾아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5. 건강한 적정체중 유지하기

나의 체질량 지수는 = 몸무게(kg) ÷ 키의 제곱(m)²



- + 칼로리 섭취를 줄이세요.
- +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세요.
- + 잘못된 식사 습관을 찾아 개선하세요.
- + 신체활동량 늘리세요.

6.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7.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8. 암 조기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7대암 검진 권고안_ 국가암정보센터

암 종	검진대상과 연령	검진주기	일차적으로 권고하는 검진방법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검진방법
위 암	40~74세	2년	위내시경	위장조영촬영
간 암	40세 이상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연령과 상관없이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 자	6개월	간 초음파 + 혈청 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45~80세	1~2년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유방암	40~69세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	3년	자궁경부세포검사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폐 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금연 후 15년이 경과한 과거 흡연자는 제외) 55~74세 고위험군	1년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암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음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5세 이상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음

심뇌혈관질환 예방, 나쁜 생활습관과 이별하라!!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연, 절주, 체중 감량 등을 새해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관련 학계와 질병관리본부가 중증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증, 뇌졸중) 예방을 위한 중요 생활 원칙을 9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아래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80% 낮출 수 있으니, 다시 결심을 굳게 하시어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글_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 + 흡연자는 심근경색증,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2배 높습니다.
- + 금연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 간접흡연 역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 담배를 피우는 당뇨병 환자는 비흡연자보다 합병증이 더 일찍 발생합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 + 고위험음주자(WHO) : 한 번의 술자리에 서 남자는 소주 7장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소주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마시는 사람
- + 한두 잔의 술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음주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병증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 + 우리나라 사람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15g(2~3 티스푼)으로, 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기구(FAO) 목표 수준인 5g(1티스푼)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 +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여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 + 적절한 신체활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감소시켜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망 위험을 줄입니다.
- +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체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보다 많이 움직이세요. 정해진 운동 시간 이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운동에는 러닝머신 등의 운동은 물론 집안 청소, 계단 오르내리기, 시장 갈 때 걷기 등 모든 신체활동이 포함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체질량지수가 25kg/m² 이상이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3kg/m²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질환의 사망률이 1.5배 증가합니다.
- +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소아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 +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부정맥을 유발하며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 +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폭식 등 다른 심뇌혈관질환 위험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 우울증은 흡연, 신체활동 감소,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 + 고혈압,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검사상 이상이 의심되면 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가족력 등 다른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의 약물치료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해야 하며, 약물 변경이나 중단 등을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 본격적인 약물 치료 이전에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체중 조절, 금연 등의 생활습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약물 치료가 시작된 후에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 + 뇌졸중 조기증상 : 편측마비, 어지럼증/심한 두통, 시각장애, 언어장애/의식장애
-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 호흡곤란, 심한 가슴 통증, 통증 확산
- + 절대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마세요!
- + 1가지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전문병원 응급센터'로!
- +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로 전화하세요!



싱그러운 웃음 곳곳한 젊음 가슴에 지우지 못하네

동인천역 건너편의 중구 인현동은 한때 인천 최고의 번화가였다. 제물포고 등 많은 학교가 밀집해 있었고 경인철도 동인천역과 인천의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경유하던 교통의 중심지였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상가의 출입구였던 덕분에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이제는 시간이 멈춰 서 있는 원도심으로 변했지만 곳곳에 교복 세대들의 아련한 추억이 서려 있는 동네다. 안타깝게도 인현동이 전국적 지명이 된 것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 때문이었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있다' 저자

인현동



화마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 알개들의 천국 인현동

1999년 10월 30일, 시내 몇 고등학교에서 축제가 끝났다. 그 기분을 이어가기 위해 학생들은 동인천역 부근 호프집으로 몰려들었다. 오후 6시 55분경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2층 안으로 매캐한 냄새가 스며 들었다. 모두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입구 쪽으로 시뻘건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세차게 들어왔다.

54명이 화마(火魔)에 희생됐다. 인천 시내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이 한두 명씩 포함되었다. 아이들의 유골은 월미도와 팔미도 앞바다에 뿌려졌다. 그래서인가, 10월 인천 앞바다의 파도는 유난히 세차고 구슬프다.

화재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천학생교육회관은 2001년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한 축현초교가 있던 자리다. 학생들이 마음껏 즐길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맞았다는 어른들의 자책과 자성으로 마련한 공간이다.

회관에는 만화방, 보드게임방, 보컬연습장 심지어 디스크장과 노래방도 있다. 화재 사건 후유증으로 이 지역은 한동안 인적이 끊기며 적막감마저 들었다. 화재 발생 14년, 화상(火傷)은 어느 정도 치유되었고 기억 속에 멀어지면서 다시 청소년들의 재기 발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에 백화점이 하나도 없던 시절, 인천의 대표적인 스쿨존 인현동에는 '학생백화점'이 있었다. 1층에는 문구점과 화방, 체육사와 레코드점 그리고 2층에는 DJ가 있는 분식집이 있던 대동학생백화점이다. 5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이곳은 일년 내내 학생들로 늘 붐볐지만 특히 3월 신학기를 앞둔 며칠 전부터 학용품과 체육복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창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입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줄은 백화점을 감쌀 정도로 꼬리가 길었다.

인현동에는 1남3녀(남고 1개, 여고 3개)의 고교를 비롯해 초·중학교 10여 학교가 있었다. 반경 300m 이내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했다. 7,80년대 등하교 시간에 이곳은 마치 거대한 펭귄 떼가 이동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만큼 온통 교복 입은 학생들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이 번창했다. 용동마루턱을 기준으로 신포동과 경동은 어른들의 공간이요, 인현동은 알개들의 천국이었다.

'삼천리국수강산 대한민국(大韓麵國)'의 막내 면발, 쫄면의 이름을 처음 얻은 고향답게 명물당, 만복당, 맛나당 등 '당'자 돌림의 분식집들이 한 집 걸러 하나씩 있었다. 이제는 학교도 많이 떠났고 학생수도 줄었지만 대동백화점 아래쪽으로는 아직도 몇몇의 문구점, 체육사, 화방, 분식집이 남아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학창시절 깔깔대며 이 거리를 거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대한서림과 별음약감상실

서울에 종로서적이 있었다면 인천엔 대한서림이 있다. 7,80년대 젊은이들의 모임은 책방 앞에서 먼저 만난 후 장소를 옮기는 아날로그식 만남이었다. 동인천역에 내리면 한 눈에 보이던 5층 건물 대한서림은 인천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랜드마크였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대한서림에서 일단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무슨 사정으로 끝내 나타나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며 읽은 책이 짧게는 시집이요, 길게는 소설이었다.

대한서림이 문을 연 지 어언 60년. 우리나라 책방 역사에 쉽지 않은 세월이다. 이 책방은 1953년 처음 문을 열었다. 1978년 김순배(70) 회장은 장인이 운영했던 서점을 이어받았다. 현재의 5층 건물 전에는 그 옆 작은 2층 건물에 대한문구사와 대한일보와 함께 있었다. 그는 서점의 전문화, 대형화를 예견하고 공학도 출신답게 업계 최

초로 전산화 작업을 했으며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하게 했다. 결국 대한서림은 국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서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월은 이겨 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부터 1, 2층을 빵가게에 내주고 3, 4층만 운영하고 있다. 책방이 ‘책빵’이 된 것이다.

현재 대한서림이 있는 건물은 원래 별제과 건물이었다. 1, 2층 별제과 점 3, 4층 별다방 5층은 음악감상실이었다. 별제과는 결혼을 앞둔 양가 부모의 격식있는 상견례 자리였을 만큼 70년대 당시 인천 최고의 ‘럭셔리’ 양과점이었다. 말 그대로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별’처럼 보이던 시절이었다. 별음악감상실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던 젊은이들의 발길로 문턱이 닳았다. 가수 송창식도 무명 시절에 가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때 문인들이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별제과 건물은 동인천 문화예술의 한 공간을 담당했다.

대한서림 빌딩 옆, 낡은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는 키 낮은 집들이 옛 인천여고까지 이어져 있다. 서울 세운상가가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빵친다면 소형 헬리콥터 정도는 조립한다고 맞받아 칠 수 있었던 인현동 전자상가다. 일제강점기 때 마쓰다 양조장 건물이었던 빨간 벽돌건물을 중심으로 축현학교 담을 기댄 크고 작은 전파상과 조명가게 그리고 전업사가 오밀조밀하게 늘어서 있었다. 이 건물은 한때 디스크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훤히 보이는 천장의 뼈대는 여전히 튼실해 보인다. 이곳은 이제 진공관 시대를 거쳐 IC, 그리고 IT 시대로 오면서 외관부터 많이 변했다.

인천 최초의 지하상가와 기차길 옆 오두막

땅 밑에도 인현동이 있다. 1972년 인천 최초의 지하상가가 뚫렸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길게 늘어선 지하상가는 1972년 새 동인천을 시작으로 1974년 동인천, 1977년 중앙로, 1980년 인현, 1983년 신포까지 모두 5개의 지하상가가 조성됐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개통되었지만 실제로는 민방공 대피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다. 대피 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냉난방 시설이 없었고 환기가 제대로 안되었으며 조명도 열악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Scazio’의 주인 김갑숙(59) 씨는 이곳에서 36년 동안 신발을 팔아왔다.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양화점 점원으로 일을 시작한 그는 1년 후 바로 사장으로 신분 상승했다.

“20여 년 전 한창때는 당시 공무원 한 달 봉급 40만 원을 하루에 다 벌만큼 장사가 잘됐어요.”



동인천역 옆의 쪽방촌

그도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 없어 휴대폰 판매로 업종을 바꾸었다가, 단골들을 외면할 수 없어 최근 매장 한편에 신발가게를 자그맣게 다시 열었다.

“그땐 굉장했어요. 지상과 지하가 인천 최대의 상권으로 서로 부딪치며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요. 인천에서 새 신발, 새 옷 하나 장만하려면 꼭 이곳에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지하상가에서 아들과 함께 금은방 ‘도레미양행’을 운영하는 동인천의 티켓대감 옥현철(51) 씨는 그때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인천 최고의 변화가, 바로 인천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무르는 동인천의 모습이다. 도레미양행의 모태는 그 옛날 극장광고에도 종종 등장했던 도레미소리사. 부친이 운영하던 소리사는 전파사가 되었고 금은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도레미’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그 세월이 50여 년이다. 가게는 원래 중앙시장에 있다가 북광장역이 조성되면서 지하상가 안으로 옮겨왔다. 30여 곳에 이르던 금은방 가운데 지금은 10군데 정도가 살아남았다.

인현동에는 기차길 옆 오두막이 있다. 보이질 않아 사람들의 기억



삼치 맛 못지않게 간판구경하는 맛도 좋은 삼치거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곳. 동인천청과물시장 건너편 빌딩 뒤의 쪽방촌이다. 다닥다닥 붙은 슬레이트 지붕을 얽은 140여 개의 집들이 철로를 따라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가까이 길게 늘어서 있다. 동네 한가운데 커다란 우물의 흔적이 있고 그 옆에 공동변소와 공동목욕탕이 있다. 집에는 그만한 공간을 낼 틈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 공동시설을 만든 것이다. 기차가 지나가자 집들이 심하게 떨린다. 대낮인데도 앞을 막은 건물과 방음벽으로 인해 골목으로 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다. 기차가 일으킨 바람소리 외엔 소리도 없다. 역 방향쪽 골목은 ‘똥골’이라 불린 사창가였다. 7,80년대에는 낮이고 밤이고 역 광장에 포주들이 나와 있었다.

인현동에서 전국구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삼치거리

학생교육문화회관 뒷길은 매일 저녁 고소한 삼치구이 냄새가 진동한다. 이 골목길이 삼치거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인하의 집’이 현재의 자리에 약간 떨어진 곳에서 삼치와 막걸리를 팔면 서부터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후까미 양조장, 광복 후에 ‘소성주’라는 인천막걸리의 토대가 된 대화주조라는 양조장이 있었다.

이곳은 응봉산(자유공원)과 연결되는 수맥에 지하수를 뚫어 약수로 술을 빚어 술 맛이 좋았다고 한다.

때문에 술은 자연스럽게 막걸리가 나왔고 안주로는 인근 부두에서 싼값에 팔리는 삼치를 튀겨 내놓았다. 이후 한두 집씩 삼치를 곁들인 막걸리집이 들어서더니 지금은 15개 업소가 성업 중이다. 업소마다 기름에 튀기거나 그릴에 굽는 등 제각각 다른 독특한 맛으로 손님들을 끌고 있는데 어느 집이든 어른 손바닥보다 큰 삼치를 두어 토막씩 한 접시에 푸짐하게 담고 있다.

이곳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삼치와 막걸리로 저녁을 대신하면서 개똥철학을 설파하고 시국을 논했던 곳이다. 세월이 지나 이제 중년이 된 그들은 이 골목을 다시 찾아 그 시절의 향수에 젖곤 한다. 막걸리 열풍 덕분에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지만 서너 명이 마음껏 먹어도 2,3만 원이면 충분한 정도로 세월이 흘러도 서민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장소의 연조를 말해 주듯 ‘인하의 집’ 주차장에는 100년 된 라일락 나무가 아직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인심과 맛은 바뀌지 않았어도 거리와 건물의 외관은 많이 바뀌었다. 2001년 이 거리는 ‘동인천 삼치거리’로 지정되었고 얼마 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간판과 외벽을 치장했다. 화가 등의 손길을 거치면서 모든 가게의 간판이 ‘작품’으로 거듭났다. 삼치 맛 못지않게 간판구경하는 맛도 괜찮다.

그때, 이곳 인현동



축현초등학교 현재의 신흥초교였던 인천공립고등학교의 취학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현동에 교사를 신축하고 인천공립삼상학교라는 이름으로 1919년 4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했다. 1935년 이름을 인천용감심상소학교로 바꾸었는데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였다. 광복 후 축현공립국민학교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6·25 전쟁 중 신흥초교에서 재개교했다. 2001년 3월에 연수구 옥련동으로 이전했다.

동인천지하도 1967년 동인천역이 번잡해지자 교통과 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하도를 뚫었다. 1972년 이 지하도와 새동인천지하상가가 연결된 이후 1974년 동인천, 1977년 중앙로, 1980년 인현, 1983년 신포지하상가까지 모두 5개의 지하상가가 이어졌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고도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갈 수 있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하상가로 조성되었다.

우리 할아버진 언제나 말씀하셨지! 왓슨은 36.5도의 따뜻한 촉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지 않는다고!!

세상의 모든 남자는 어떠한 위기에서도 만능의 재주를 부리는 맥가이버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다. 외화드라마의 배우 '리처드 딘 앤더슨' 보다 더 인기를 모았고 지금도 'Long Run' 하는 국민 성우 맥가이버, 배한성 씨를 만났다. 아들이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다니고 있어 친근감이 있다는 그는 인하대병원 CEO과정 조찬 모임도 함께 했었던단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김명관 실장 / 로템스튜디오



Long Run 시켜
Long Learn
하세요
배한성
2017.1.13

1 | 2

- 1 동화적이고 몽환적인 순수한 이야기에 아직도 꽃한다는 그는 자동차광으로도 유명하다. '맥가이버 시승기' 기사도 10여 년간 썼다.
- 2 아직도 그는 원고지에 쓰고 고치기를 정성껏 반복한다. 워드가 서툴러서 하는 직업이지만 이 또한 '치유'의 과정인 것을--



따뜻한 인간성의 본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좋은 마음 갖기가 웰빙이라고 생각한다. 계단은 무조건적이고 많이 걸어 다닌다는 그는 한시도 머무르지 않는 '호학의 삶'을 꿈꾼다.

'롱런(Long Run)하려면 롱런(Long Learn) 하라!' 나의 캐치프레이즈

'성우'는 자신에게 DNA같은 직업이라고 말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일을 확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강의'가 떠올랐다는 그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우연한 기회에 주례를 서게 된 그는 뻗은 주례(?) 말고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끼'를 발동하여 색다르게 했다. "그건 비밀이고, 들으나 마나 한 주례는 아니었지. 처음 한 주례사였는데 반응은 괜찮았어요. 그때 에이전시라면서 강의를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보고 싶었다고 했죠. 첫 강의는 개천에서 용이 된 게 아니고 개천에서 용~~하게 살아남았다는 자수성가 얘기를 했어요." 장소와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서야 한다고 전하며 목소리 연기에서 NG가 난 경우도 매번 다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한다. 아무리 잘한 연기라도 그건 버리고 본적 없는 또 다른 연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그래서 영화 배우 송강호를 좋아한단다.

왓슨(Watson)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마주하고 만져보고

디테일한 따뜻한 정성이 중요

웰빙에 대한 생각을 몰았다. 알파고로 시작된 인공지능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계에 최근 이슈가 되었던 '왓슨'에 대한 자신의 겸손한 견해로 시작한다. "빅 데이터에 의한 최신 약 위주라서 약값이 비싼 단점은 있지만, 권위 있는 의사의 처방을 왓슨이 그걸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약사와 의사의 직업이 끝난 거나? 내 생각은 'NO!'입니다. 내 생각에는 왓슨이 아니고 제이무리 뛰어나고 세상없어도 36.5도의 따뜻한 인간의 촉감은 없죠. 환자와 얼굴을 마주 보며 피부를 보고 환부를 보고 또 만져보는 이런 디테일한 정성, 이진 왓슨 아니라 뭐래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강의에서 그의 메시지는 따뜻한 인간성 본질의 소중함을 담는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좋은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인공지능에 다 내주어야 해요. 그나마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덕성이 있지 않으면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채워야 해요."

계단은 무조건 걷는 맥가이버 건강법

"몇 년 전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할 때 처음 입원한 거예요. 최근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액으로 60여 가지 체크를 했는데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약도 잘 안 먹고 병원에 잘 가지 않는 편이라 인하대병원보 인터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웃음)." 좋은 것을 따르기보다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투철한(?) 위생적이었던 자신의 깔끔한 성격이 건강의 비결인 것 같다고 한다.

조선일보 '일사일언' 필진으로 최근 4번의 글을 기고하고, 강연을 하고 틈틈이 성우로서의 작업도 해야 한다. 인터뷰 중에도 곧 녹음해야 할 대본이 전달된다. 또 장기기증 홍보대사인 그는 촬영일정이 있고 저녁에는 지인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야 한다. 하얀 스티치가 박힌 청바지에 캔버스 배낭을 메고 전철을 타고 왔다는 성우 배한성, 변함없는 목소리와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겸손까지... 역시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는 '처음'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처음과 같은 꾸준함의 신뢰가 종종 사라지는 뒷모습에 꼭 차 있다. 여의도를 온통 하얗게 덮은 흰 눈보다 눈부시다.

신살 칠드런의 동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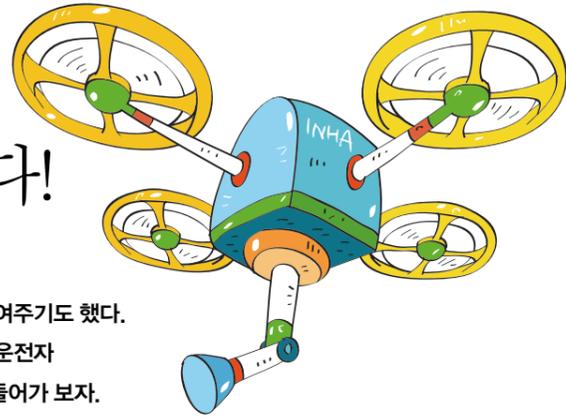
청춘의 꿈을 싣고 '드론' 되어 날다!

가수 김건모는 최근 방송에서 '신 살 칠드런의 신상 취미가 드론' 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드론 연습 때문에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해 못 말리는 킷덜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처음엔 군사 용도로 개발됐지만 설 연휴 기간 중 주요 고속도로에 투입된 드론은 암체 운전자 단속을 하기도 했다. 촬영용에서 킷덜트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드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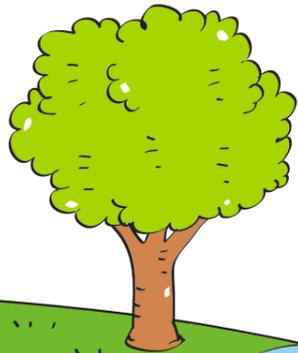


드론은 군사적 성격 말고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물의 무인(無人) 택배 서비스 등이 있다. 무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을 활용해 서류, 책, 피자 등을 개인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또, 축구, 야구 경기장의 하늘에도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이 빙글빙글 돌며 촬영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드론 촬영으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경기의 디테일까지 볼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시대가 아닌,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택배, 배달 등 드론은 어떠한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드론을 배우고 싶은 이유? 취미? 촬영?

드론을 배우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킷덜트의 취미부터 예술을 꿈꾸는 이, 재난구조 등 현장에서의 필요성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의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기본적으로는 12kg을 넘느냐에 따라 상업용과 취미용으로 나뉜다. 12kg 이하가 취미용이다. 12kg이 넘는 대형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며, 작은 것은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의 대부분이다.

드론의 종류

드론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가장 저가형 모델들은 원구용, 중가형은 취미·레저·스포츠·일반촬영 등에 많이 쓰인다.



고가형 모델들은 방송 촬영용, 구조용, 군사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용하는 고가형 드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촬영 등 기간산업에 투입되는 드론을 일반적으로 기간용 드론이라고 말한다.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은 상업용과 기간용 드론이다.

떠오르는 직업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미래 유망 분야 26개에 포함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드론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학과 과정이 시선을 끌고 있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7대 신 성장 산업으로 지정해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드론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산불감시, 국토정보수집, 재난 안전, 소방 수색산업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실무능력을 갖춘 드론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어디서 배울까? 자격증이 필요할까?

드론을 취미로 배우기 위해 동호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대 드론 커뮤니티(cafe.naver.com/dronplay)가 대표적인 동호회로 기초 입문강좌부터 직거래장터까지 다양한 정보가 가득하고 지역별 모임에 찾아가면 드론을 직접 배울 수도 있다.

드론 교육은 대학이나 학원에서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 기관에는 무성항공, 성우엔지니어링, 카스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대 부설 비행훈련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국모형항공협회와 한국드론협동조합, 한국드론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스쿨 등에서 배울 수 있다. 입문과정, 수료증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목적에 맞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12kg 이상의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무게 150kg 이하) 무인 비행장치 비행자격증을 발급한다. 비행 실습 20시간, 항공법규, 항공기상 등 항공기 운항에 대한 이론교육 20시간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2kg 이하의 드론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만 내면 누구나 띄울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는 승인 없이 조종할 수 있다. 단, 150m 이하로 드론을 띄울 수 있으며 제한 공역에서 날려서는 안 된다.

드론! 연날리기처럼 하면 큰코다쳐!!!

야경을 찍겠다고 함부로 드론을 띄우면 순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20대 남성이 한강 야경을 찍기 위해 밤 9시에 드론을 띄웠는데,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잡혀 과태료 200만 원을 내는 일이 있었다. 추락의 위험 때문에 조정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은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도 안전을 이유로 안 된다.

수벌처럼 '웅웅' 거리는 의성어에서 붙여진 이름 드론,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영원한 동심을 담고 어린 시절 갖고 놀았던 비행기 장난감처럼 또 연날리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취미답게 누릴 줄 아는 품격도 드론을 날리고 싶은 기본자세임을 잊지 말자.



드론비행 자유지역은 어디?

한강드론공원 수도방위사령부에서는 가양대교 북단이나 양천구 신정교 일대,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등 수도권 4곳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전국적으로 한 18곳 정도가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곳이라고 또 아무 때나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날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광나루 드론공원 광나루 드론공원에 하늘길이 열렸다. 드론 존과 드론 레이싱장, 드론공원 안내센터 등을 갖춘 이곳에서는 별도 비행 승인 절차 없이 12kg 이하 취미용 드론을 150m 미만 상공에서 자유롭게 날릴 수 있다.

한강사업본부(hangang.seoul.go.kr)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사이트(yeyak.seoul.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광나루안내센터(02-3780-0501)로 하면 된다.

'Ready to fly'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Ready to fly'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는 것도 드론을 안전하게 날릴 수 있는 방법이다.



드론이 날린 트렌드! 이런 것도~

드론 저널리즘 드론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앵글의 사진과 영상이 지면과 온라인, 방송영역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거다.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예능에 드론을 활용한 영상촬영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커피와 드론이 공존 '카페 드로젠' '카페 드로젠'은 커피와 드론을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숍 인 숍(shop in shop)' 스타일의 신개념문화 공간이다. 이 드론카페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드론을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드론에 관련된 커뮤니티공간으로 새로운 드론문화를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유방암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

실제 발생위험도가 높은 질환은 유방암이지만, 우리나라 여성이 주의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질환은 위암이나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암 발생률 측면에서 유방암은 서구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젊은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고 4050대 연령에서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서구보다는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글_ 허민희 교수 / 유방외과



20년 전, 유방암 검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정확한 예측

나는 유방외과 의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에서 유방외과와 갑상선내분비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이젠 인하대병원으로 이직해온 지 6개월이 되어간다.

그 병원에는 이미 고인이 되었으나 대단한 안목을 가진 창업주가 있었다. 17년 전 처음 그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했을 때 들은 그 창업주 선생님에 대한 무성한 얘기들 중 내게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 한다.

그 분은 산부인과의사였는데, 이미 20년 전에 “미국에서 1위의 여

성암이 유방암이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고 유방검진센터를 따로 만들고, 외과의를 뽑아 유방외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유방암 치료에 주력하게 하였다 한다. 그 당시 신입인 내 눈에도 그의 안목은 탁월해 보였고, 그것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딱 들어맞았다. 20년 전 우리나라 상황은 위암이 남녀 모두에게 가장 발생률이 높은 암이었으며, 여성암종으로는 자궁경부암이 수위를 다투고 있었고, 유방암은 관심 밖의 질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은 의료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이다.

유일하게 유방암의 발생률만 증가하다

지난 연말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 순으로 발생을 많이 하였고, 발생률(연령 표준화 발생률)의 추세를 보았을 때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중 유일하게 유방암 발생률만 증가하고 다른 암종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그림 1). 얼마 전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에서 발병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자의 46%에서 위암이 가장 높은 발병증가율을 보인다고 답했으며,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실제 가장 높은 발병증가율을 보이는 유방암이라 답한 응답자는 단 5.2%에 불과하였다(그림 2). 이 응답자들은 여성에게 생기는 암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자궁경부암일 것으로 생각했는데(487명, 48.7%), 지난 한해 유방암 발생자 수는 17,231명으로 실질적인 여성암 중 1위의 질환이었다. 여기서 판단하자면 실제 발생위험도가 높은 질환은 유방암이나 우리나라 여성이 주의하여 경각심을 가지는 질환은 위암이나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여성 4050 연령대에서 높아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특성이 있다(그림 3).

첫째, 유방암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미국, 서유럽 지역의 발생률에 비해 1/2~1/3 정도의 상대적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미국이나 서유럽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빈도가 증가하지만, 국내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한국여성의 폐경 후(postmenopausal) 여성 유방암의 비율이 폐경 전(premenopausal) 여성 유방암보다 발생비율이 높기는 하나, 폐경 전 유방암의 비율만을 비교할 때 서구보다 월등히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폐경 전 여성 유방암 환자의 비율이 몹시 낮은 서구에 비해 한국에서는 40대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고, 40세 이하 환자도 약 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암 발생률 측면에서 유방암은 서구에 비해 높지 않고, 젊은 여성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4050대 연령에서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서구보다는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 검진을 시작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여자니까 소중한 유방, 암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유방암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유방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는 많은 곤란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가지 우리나라 의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의료는 늘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거다. 유방암에 대한 것도 물론이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특성을 주지하여, 적절하게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유방암 검진과 치료에 적용한다면 보다 나은 생존율을 보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을 믿는다.

• 문의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유방외과 ☎ 032-890-2560

그림 1 연도별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10만 명당 발생자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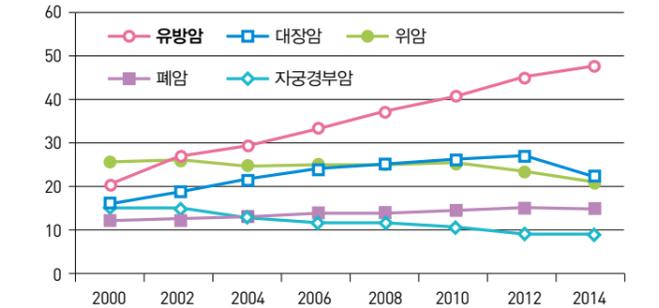


그림 2 3040 여성이 생각하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 출처 : 한국유방암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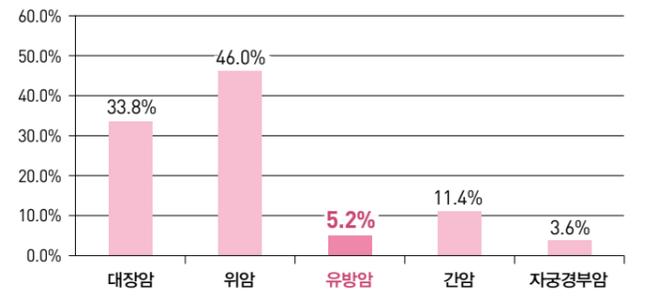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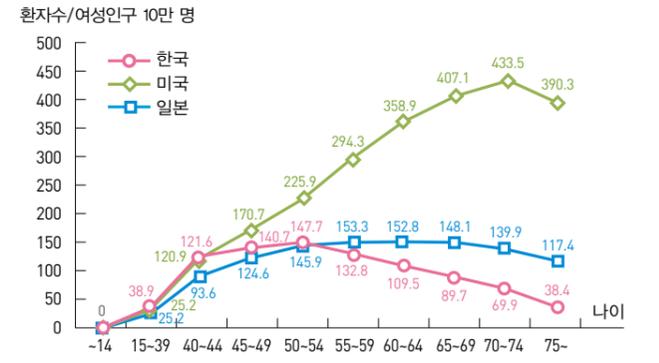


그림 3 미국, 일본, 국내 여성의 유방암 연령별 연령표준화 발생률 비교 출처 : 유방암백서 2016, 한국유방암학회





훈련 후 발전적인 상호토론 모습

환자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훈련

장소, 직종 불문 모두 참여, 조직적 팀 훈련 및 직원별 술기 능력 평가

1분에 100회 이상의 속도로 빠르고 강하게 소중한 생명 살리는 손길

인하대병원에서는 2016년 하반기 4개월 동안 의료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현장 방문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교육실 또는 강의실에서 시행해왔던 기본심폐소생술, 상급심폐소생술 교육에서 한걸음 다가가 현장 부서로 찾아가 가상 심폐소생술 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글_ 조영아 / 가치혁신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29개 부서의 177명의 직원이 현장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을 받았는데, 대상 부서는 심폐소생술 발생 구역 위험 정도를 평가하여 우선 선정되었다. 심폐소생술은 기도유지, 호흡유지, 흉부 압박, 제세동 등의 방법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병원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심정지 발생 시 팀을 호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의 일차적으로 적절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에 더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 훈련

본원은 여러 차례 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정립하였고, 효율적인 교육과 환자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훈련을 계획, 시행하게 되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 아니라 의료기사, 보조인력까지 참여한 이번 교육은 실제와 유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부서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개인별 역량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직원 별 술기 능력을 평가하였으며, 제세동기 적용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훈련 전, 후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훈련 시행 전 미리 개발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지식 정도를 테스트 한 후 심전도 리듬이나 기본 소생술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

육훈련은 심폐소생술 관련 업무의 최상위 결정 기구인 심폐소생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KALS(Korea advanced life support: 한국형 상급심폐소생술) 강사들로 구성된 2인 1조 팀 접근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교육훈련 내용은 개인별 역량평가와 더불어 심장압박, 제세동기 적용에 대한 실습과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폐소생술, 가장 기본적인지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

현장 방문 심폐소생술 교육훈련은 일본일초가 중요한 심폐소생술 발생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인하대병원의 교육 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교육 훈련 팀 리더를 맡은 백진휘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지만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육 훈련 후, 원활한 심폐소생술을 위해 팀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상호 토의 시간을 가졌으며, 즉시 피드백 및 재실습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술기 훈련을 피드백하였다. 특히 제세동기 적용, 흉부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 1:1 개인별 훈련 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진단검사의학과와 한 직원은 “이번 현장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조직적 팀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히 습득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심폐소생술 시 가장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흉부 압박과 제세동기 부분에 대해 상당수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실제 심폐소생술을 겪은 경험이 적은 것과 환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빠른 처치 수행에 대해 의사 이외의 직원들이 판단하는 훈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훈련 후 토의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 방법 조언

대부분의 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았음에도 직접 심폐소생술을 적용하기 주저하거나 심폐소생술 준비 행위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팀 접근 방법에 대해 경험이 없어 즉각적인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적합한 제세동기의 위치 선정이나 업무상 검사 구역이 많은 부서는 응급 카트의 배치, 담당자의 지정 등이 필요했다. 교육훈련 강사들은 부서장, 직원들과 토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훈련 환경, 방법을 찾도록 조언하였고, 각 부서별 심폐소생술 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인별 지식평가와 역량평가에 따른 자체평가 계획도 수립하여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하대병원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빠르고 힘 있는 손길이 병원의 곳곳에서 미칠 수 있도록 직원을 훈련하여, 24시간 안전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고 내원객이나 환자·보호자 직원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진료대기시간 SMS 발송 시스템 구축

진료대기시간에 병원의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세요!

우리 병원이 올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는 진료대기시간의 단축이다.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돋보이는데, 실제 진료의 흐름 개선과 안내 표지판 개선 등의 노력이 있는가 하면, 진료대기시간에 실제 대기 하는 환자의 지루함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눈길을 끄는데 그중 하나가 문자발송시스템의 구축이다. 글 손보광 / 홍보팀



신규 환자용
*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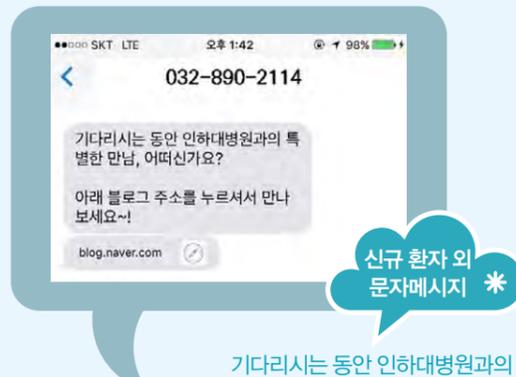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인하대병원에서 스마트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하시는 동안 아래 블로그 주소로 만나보세요!
<http://blog.naver.com/inhamedical/220730863864>

신규 환자의 경우 외래 공간에서 환자가 도착했다는 확인을 하는 즉시, 환자의 핸드폰으로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인하대병원 공식 블로그의 주소가 문구와 함께 발송되며, 환자의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 상에서 클릭하게 되면, 홍보팀이 자체 제작하고 있는 건강 정보 스토리텔링형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카드뉴스, 인천 시민의 주치의 이야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환자의 경우 병원을 처음 방문하게 되어 불안한 마음과 진료 절차의 복잡함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에 마음을 위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송하여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 보면 어느새 진료시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환자만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 외 건강정보를 원하는 고객들 모두가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문구가 약간 달라진다.



신규 환자 외
*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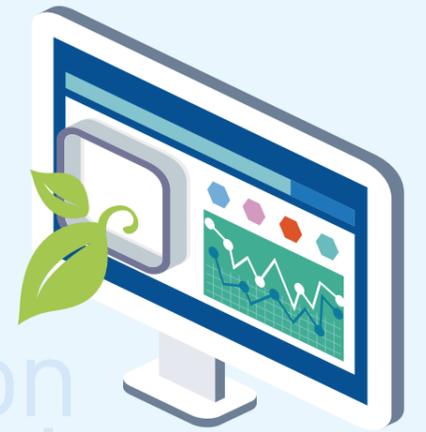
기다리시는 동안 인하대병원과의 특별한 만남, 어떠신가요? 아래 블로그 주소로 만나 보세요~!
<http://blog.naver.com/inhamedical/220853150104>

최근 사람들은 어딘가에 잠시라도 대기할 시간이 생기면 장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바라본다. 최근 몇 년 전에 지하철에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에 비하면 최근엔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사람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일상화되었다. 병원을 방문하는 고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기다릴 수 있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하대병원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병원의 작은 시도다. 오늘 인하대병원을 방문하시는 여러분, 손 안의 작은 세계에서 인화의 새로운 소식을 접해보는 것은 어떠신지?

인하대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안내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예약서비스 제공

인하대병원에서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및 현장방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ervation Service

빠른예약



- 진료예약을 원하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회원 로그인 없이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전문상담원이 정확하고 빠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8:30 ~ 16:30
토요일 · 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예약

- 진료예약을 원하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회원 로그인 후 진료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하실 진료과 / 의료진 / 질환명을 검색하여 예약합니다.

전화 예약

- ▶ 032-890-2000
- 전화예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 ▶ 외래접수 창구 예약
-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전화예약을 못 하신 경우는 진료 당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단,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 외래 진료과 예약
- 진료 후 진료과 외래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에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름다운 현상이야

- 피노키오 ♣

글 김시현 차장 /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8살 꼬마아가씨가 안과 치료후 활짝 웃어 보이며 주머니 속 사탕 한 알을 건넵니다.
수줍게 배시시 웃으며 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한 다리를 제게 자랑하던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영희(가명, 만 22세) 씨는 10세에 희귀질환인 크론병으로 진단받은 이후 주요 증상인 설사, 고열,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해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를 간병하는
어머니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언니마저 크론병이 발병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입원할 때마다
병원비 마련은 언제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합병증으로 발생한 소장간 누공으로 소장절제수술도 받고,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을
넘나드는 위중한 고비도 있었지만 영희 씨는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성실히 공부하며 대학 4년을
마치고 드디어 올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오랜 기간 희귀병으로 투병하면서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병하던 아이가 새 힘을 얻고 대학생활을 마친 것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고마우신 손길들을 떠올려드립니다.
청년역력같은 소식에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 도둑의 손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지금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지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시련의 끝은 있겠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리라 생각하고 기원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얼마 성의를 다해 양육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고마우신 은혜를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보며 감사의 마음을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 영희 씨 아버님의 편지 중 발췌 -



“아이들을 지켜야 할 가정이
오히려 폭력과 학대,
살인의 장소로 전락했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인하대병원의 의료지원사업은 연간 400여 건에 달하는데 여기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 자투리 모금액과 후원금에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더 많이 보듬기 위해 작년에는 인천시청과 보호대상 아동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곳입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보호 관련 예산은 2015년 488억 원 에서 2016년 372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런 열악한 구조가 아이들을 학대와 방임에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가정이 오히려 폭력과 학대, 살인의 장소로 전락했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적어도 인천에서만 이라도 더 이상 아픈 아이,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인하대병원과 인천시청은 인천 관내 모든
시설의 아동들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수줍게 배시시 웃으며 보조기를 착용한 다리를 제게 자랑하던 남학생은 인하대병원과 인천시청이
함께 진행하는 보호아동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심하게 휘어진 다리를 수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재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결 밝아진 아이를 볼 때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인하대병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고 그래서 한겨울 찬바람도 견딜만합니다.



갑상선 수술 후 호르몬제 복용이 꼭 필요한 이유



Q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입니다. 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A 갑상선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치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갑상선을 대신하여 호르몬을 보충해 주고, 갑상선암의 재발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수술 후 갑상선이 파괴된 경우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 수 없게 되므로, 갑상선 기능 회복을 위하여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합성 티록신(Thyroxine, T4)을 복용하여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합니다. 또한 갑상선암 세포막의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수용체는 TSH 자극에 반응하여 세포성장이 증가하는데, 생리적 용량 이상의 갑상선 호르몬제를 투여하여 음성 피드백 기전에 의해 TSH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써, 갑상선암의 재발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Q 갑상선 수술 후 퇴원약으로 '씨씨본'이라는 제산제를 하루 여덟알 먹도록 처방받았습니다. 제산제를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나요?

A 많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은 후에 손발이 저리거나, 경련이 나타나는 저칼슘혈증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칼슘과 비타민 D를 처방받는데, 문의주신 '씨씨본 정'의 성분은 Calcium carbonate로 제산제의 역할보다는 칼슘을 보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행된 갑상선암의 경우, 갑상선 절제술과 중앙경부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는데 이 때 갑상선 후면에서 칼슘대사를 관장하는 부갑상선으로 가는 미세혈류가 나빠져서 혈중 칼슘이 떨어집니다. 칼슘이 모자라게 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등 여러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칼슘혈증은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6개월~1년 내에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나, 약 1~2%의 환자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갑상선 호르몬제와 칼슘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나요?

A 갑상선 저하증 치료제인 Levothyroxine(씬지로이드OR)은 제산제, 칼슘이나 철을 함유한 약제 등을 병용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간격을 두고 병용을 권장합니다. 보통 Levothyroxine의 경우 아침 공복에 복용하도록 처방되므로, 칼슘 약 병용 시 식후로 복용하여 시간 간격을 두시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료 :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7 | 야간 032) 890-3315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관절염 아니다 정확한 진단이 완치의 확실한 치료방향입니다!!

지난해 2월 '마디척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한 '배주환·이종민' 두 대표 원장은 '친구는 제2의 자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파트너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한 진단으로 필요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개원 동기에도 뜻을 같이한다.



마디척정형외과 배주환·이종민 원장

약물치료부터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과 재활까지

“수술 안 하는 병원과 수술하는 병원, 이렇게 한쪽으로만 너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측면증 환자는 교정 위주로 치료해야 하고 협착증 환자는 척추의 S 모양에 맞게 치료해주는 감압치료를 받을 수 있죠. 무릎이 아프다고 모두 관절염이 아닌데, 관절염 치료만 받으신 분도 많아요. 무릎 질환만도 책 한 권이거든요.”

두 원장은 같은 부위라도 원인이 질환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우선으로 치료방향이 잡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포 감정동에 자리한 이유는 척추관절질환 수술 전문 병원이 없기 때문이었다. 마취과 전문의와 함께 약물치료부터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과 재활까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섭파전기 자극치료, 무중력디스크 감압치료, 척추교정 테이블, 체외충격파, 고감도레이저치료기, 수동관절 운동치료 등 대학병원급 의료장비와 최첨단 관절내시경 장비 등 감염위험 없는 무균 수술실에서 외과적 수술도 하고 있어 모든 척추관절질환의 확실한 치료가 가능하다.

| 마디척정형외과 | 경기 김포시 중봉1로 17 ☎031-981-2567



만지고 눌러가면서 성의 있게 꼼꼼히 물어보는 진료

정형외과는 젊은 층부터 노년까지 환자의 폭이 넓고 많은 과다. “만지고 눌러가면서 성의 있게 진찰하면 됩니다. 얘기만 하고 듣고 하기보다 정형외과 진료는 신체검사가 중요해요. 비슷한 질환이 많이 오니까 건너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꼼꼼히 묻다 보면 병명 캐치 되는 게 있어요. 환자의 주관적 얘기인지 등을 잘 찾아내야죠.”

배주환 원장은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 꼼꼼한 진료에 중점을 둔다. 디스크가 터져 실려 왔다가 걸어서 며칠 후 걸어가시는 분, 2년간 침대 생활을 하시다 인공관절 수술 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분 등을 볼 때면 드라마틱한 감동과 보람을 느끼는 두 원장이다.

전문화된 병원이 없다보니 보존적 치료만 하고 병을 키워 온 환자가 많았던 지역에 두 원장은 소통하며 믿을 수 있는 진료로 주민과 함께 하고 있다.

모교 인하대병원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는 곳

모교인 인하대병원과 더 가까웠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된다. 필요하면 전문은 물론 어려운 수술도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의지가 되고 좋다고 전한다.

다음 달은 MRI장비가 들어오는 등 현재까지 병원 수익은 시설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 3월이면 척추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두 분이 힘을 더한다.

내가 이런 생각이면 저 친구도 그런 생각이고 눈빛만 봐도 알고 20년간 싸운 기억이 없는 배주환·이종민 원장이다. 웃음도 어투도 닮았었다. 그리고 5년 내 병원 수준으로 성장하여 믿을 수 있는 진료로 확실한 치료를 하고 싶은 '꿈'을 꾸다.



인하대병원,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공식지정병원 선정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의 개최도시 중 하나인 인천의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2월 22일(목), 인하대병원은 내년 5월에 개최될 FIFA U-20 월드컵 대회의 지정병원 협약을 맺으며 대회 기간 중 전반적 의료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공적 대회운영을 돕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인하대병원을 비롯한 6개 개최도시의 지정병원은 대회 기간 동안 의사 1명을 개최도시 의료담당관으로 지원하고, 경기 당일 응급구조사 3명, 앰블런스 1대, 훈련일에는 응급구조사 4명을 지원하는 등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 팀 관

계자, FIFA 및 조직위 관계자의 안전한 경기 참가를 위해 노력하고, 부상 및 질환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대학병원으로서 인천의 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 및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U-20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 축구 발전, 인천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협력병원 대상 '신생아 호흡관리' 세미나 개최



12월 1일, 인하대병원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지역사회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호흡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 지역 7개 여성병원의 간호사 등 관계자 총 60여 명을 초청해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생아 호흡기 질환(전용훈 센터장) ▲신생아 호흡보조 최신 트렌드(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주영 교수) ▲신생아 호흡 간호(인하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최현희 간호사) ▲질의응답 섹션으로 구성되어 신생아 호흡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인하대병원 건강문화최고경영자 총원우회, 부녀(여성)간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 지원 인하대병원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총원우회는 '환우돕기기금' 조성을 통해 부녀(여성)간 혈



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지원했다. 기금수혜를 받은 환자는 한 모씨(여, 33세)로 인하대병원에서 아버지(남, 64세)의 신장을 이식 받고 지난 11월 1일 건강할 모습으로 퇴원했다. 한 모씨는 2007년 루푸스 진단을 받고 약물과 호르몬제 치료를 병행하던 중, 지난해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진행해 온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수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2016년도 제3차 국제의료봉사단 베트남 파견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지난 11월 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에 2016년도 제 3차 국제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포스코건설, 구세군 자선냄비와 함께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가정의학과 최지호 교수가 단장으로,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를 비롯, 외과, 치과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베트남 팡응아이 지역을 방문하여 보건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을 진행했다.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동문회, 의료기기 기증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동문회(회장 전용선)는 최근 인하대병원에 교육 진료용 최신 초음파의료기기를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초음파 장비는 알피니온사의 최신

형 초음파장비로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동문회 7명을 비롯한 회원들이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진료와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동문회는 지금까지 약 팔천만 원의 연구비를 인하대병원 측에 지정기탁금으로 기부해오고 있다.

인하대병원, 5년 연속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 안전 우수건물 인증 획득



인하대병원이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한 2016년도 화재 안전 우수건물 심사에서 최종 선정되어 20일(화) 현판식을 했다. 화재 안전 우수건물은 총 4단계에 걸쳐 10년간 화재발생이력을 점검하고, 소방시설의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위험도를 측정하는 까다로운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인하대병원은 전국 3만 6천여 개 대상 건물 중 인 정받은 210개 건물 중 하나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5년 연속 우수건물 인증에 성공함으로써 환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내구성을 지닌 병원임을 입증했다.

한국청년회의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체결



1월 22일, 인하대병원은 한국청년회의소와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지원을 골자로 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2017년 한국 JC 총회 및 신임 회장단 취임식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 국제의료봉사 활동과 협력하여 의료 지원과 현지 환자 초청 수술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협약



지난 12월 2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인천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협약식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각 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환우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매월 일정한 기부금을 모금하여 조성된 성금 1억 원이 전달되었다.

연말의 사랑을 인하대병원과 함께, '희망의 도서 나눔' 행사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주간, '희망의 도서 나눔' 활동을 통해, 소정의 모금액을 적립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인천광역시청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외부기관에서 후원받은 아동용 도서와 병원 직원들이 기증해 준 도서를 내원객을 비롯해 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소정의 금액을 모금하였다. 전체 모금액은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사용하여 희망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자선경매 활동으로

인천 중구 보라매아동센터에 물품 전달 지난 12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의료센터와 인하국제의료센터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해 자선경매 활동을 진행한 수익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인천 중구 보라매아동센터에 전달했다.



2016년도 송년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자선 경매 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경매활동을 통하여 마련된 수익금으로 세미나 테이블, 청소기 등을 구매해 전달했다.

지역사회 보은과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2017년 2월 4일, 인하대병원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산동네를 찾아가 연초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반납하고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3,500여 장의 연탄을 나르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한마음을 다하여 따스한 겨울을 선물하였다.

'제7회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 성료



인하대병원은 올해도 지역사회 소아당뇨병 환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월 5일 ~ 7일, 소아당뇨병 환우와 가족들의 인식개선, 질환관리 교육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청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7회 소아당뇨병 건강나눔캠프'를 실시했다.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병 교육 전문가의 교육, 각종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제14회 QI학술대회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난 2월 4일(수), 일하기 좋은 부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제14회 QI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016년 QI활동을 진행한 총 23개 팀 중 QI우수사례 구연발표 8팀, 포스터 발표 15팀과 우수 지표관리 2개 팀, 우수 CQI 포스터 2개 팀이 참가하였다. 또한, 각 부서와 진료과에서 관리하는 우수 지표관리 사례 3개 팀으로 응급의료센터 재실시간 관리나 마취 후 회복실에서 발생한 위해사건 & 합병증 발생률, 그리고 장기이식 관련 지표관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QI학술대회에는 협력병원 10개 병원에서 총 36명이 참석하여 함께 QI활동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김영모 병원장은 “올해도 환자안전과 진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 백석고등학교, 인하대병원에 헌혈증 전달



11월 22일(화), 인하대병원은 인천 백석고등학교 (교장 한재현, 인천 서구 소재) 학생들이 손수 모은 헌혈증을 전달받았다.

백석고등학교의 청소년 봉사동아리 '향사단'은 자체적으로 교내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여 모은 헌혈증 120장을 인하대병원 암센터에 전달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였다. 헌혈증은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는 박 모씨(26세, 여), 자궁암을 앓고 있는 신 모씨(59세, 여)에게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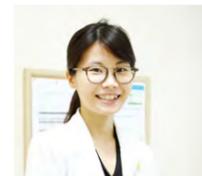
신장내과

김문재 교수,
국제고혈압학회(ISH)
공로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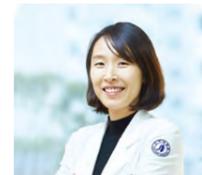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아진 교수,
'2016 119 구급
현장활동 유공 시상
표창' 수상



소아청소년과
이주영 교수,
대한주산의학회
학술상 수상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의료정보팀
최은숙 대리,
'감염병 예방 공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2월 9일(목), 3월 15일(수) 4월 13일(목), 5월 1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출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 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 세미나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2월 15일(수) 14:00~15:00 3월 15일(수) 14:00~15:00 3월 30일(목) 11:00~12:00	동구보건소 보건교육실 동구보건소 보건교육실 주안감리교회	예방관리센터 032-890-2142
고혈압 예방관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증상, 식이요법, 생활요법, 합병증 등 	3월 14일(화) 10:20~11:10 3월 29일(수) 10:30~11:10	비전시니어대학 계양구보건소 2층 보건교육장	
뇌졸중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뇌졸중의 정의, 진단 및 예방법 	3월 29일(수) 15:00~16:00	중구보건소 3층 대강당	

전시회 및 공연 안내

공연 일정	공연 내용	공연자	장소
2월 7일(화) 오후 3시	연주 및 성악	송도 센트럴 오케스트라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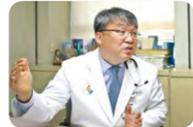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2016. 10. 26



출연: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프로그램: 우먼센스
내용: 유방암 환자가 건강하게 잘 사는 법

2016. 10. 27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경향신문
내용: '한국인 폐렴사망 증가, 가슴기 살균제 영향'

2016. 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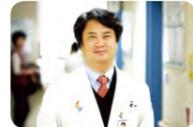
출연: 신경과 박화권 교수
프로그램: '응진권정 갈매기 소식지'
내용: 환절기 뇌졸중 위험에서 몸을 보호합니다

2016. 11. 1



출연: 응급의학과 한승백 교수
프로그램: 경인방송 라디오
공익캠페인
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

2016. 11. 1



출연: 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프로그램: 포토기운
내용: 환절기, '혈관내 치료술'로 뇌혈관질환 이겨내

2016. 11. 7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환 교수
프로그램: 국민일보
내용: 휴대전화, 세균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2016. 11. 7



출연: 알레르기내과
김철우 교수
프로그램: 시사인천
내용: 천식, 올바른 약제 사용법 알고 꾸준히 관리해야

2016. 11. 16



출연: 재활의학과
정환영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뇌의 기억, 회복

2016. 11. 21



출연: 외과 신우영 교수
프로그램: 국민일보
내용: '간이식 시술 기증자 부족 해결이 급선무'

2016.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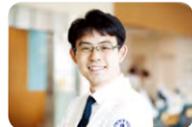
출연: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
프로그램: 경향신문
내용: 말기폐암 장기 생존환자 95%는 암과 싸우며 공존

2016. 11. 25



출연: 외과 김세중 교수
프로그램: 남구청 소식지
'나이스미주'
내용: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

2016. 11. 28



출연: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
프로그램: 인천경기
기자협회보
내용: 스트레스 관리

파랑새 소식

교육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2016 파랑새 송년회



2016년 12월 8일, 연수동 광장프라자 12층 나우베베에서 파랑새 환우 및 가족분들이 모여 즐겁고 뜻깊은 송년파티를 가졌다.

유방갑상선센터장이신 김세중 교수님을 비롯해 유방암 환우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모두가 참석하였고 자리를 옮긴 조영업 교수도 함께 참석하여 파랑새 환우들을 격려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순서로는 건강하게 노년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케이크 커팅식을 하였다.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들을 환영해 주고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2부 순서에는 1년 동안 연습과 연습을 거듭하여 준비한 지역구 마다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을 뽐냈다. 마무리는 고생한 서로를 허그로 안아주며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행복한 송년파티로 한 해를 마무리 하였다.

다음 행사

- 추후공지 예정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 문의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032-890-2560
- ▶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카페 cafe.daum.net/inhabluebird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월,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홍성빈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권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김소현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수□)	*13:30~15:30		
외과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외과	김세중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목□) (화□)	서비스진료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화, 목	화				허민희		갑상선수술, 소화외과	화, 수	금	
종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이비인후과	최윤미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신영	무통중환도수술, 아이비인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화, 목, 금	화,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 수요일 오후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수	서비스진료			허민희	유방외과, 갑상선 내분비외과	(월□), (목□) (화□)			
		권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외과	최선근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소화기외과, 대장항문	월, 목, 금			종양내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월 오후	
		진영주	*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금	수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종양내과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비뇨기암	비뇨기과	박원희	중앙,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윤상민	중앙, 결석, 신이식	월, 금		월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든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중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정 석	* 췌장암, 담도암, 위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월, 금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암 대학제 통합진료 : 금요일 오후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종양내과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중양내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암 대학제 통합진료 : 목요일 오후			
		곽승민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1, 3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류정선	* 폐중앙,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월■), 목				김한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남해성	폐중앙,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화, 금	(수■), (금■)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13:30~15:30 유방·갑상선외과센터
흉부외과	김정택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임파부종클리닉	재활의학과	김영욱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암 대학제 통합진료 : 화요일 오후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피부암	피부과	최광성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종양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신장외과	신장외과	신장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1, 3주), 화	() : 주별 진료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중양내과	이문희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중양내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흉선암	월, 금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신경외과, 안면경련, 3차신경통	월(▲), 금	수	▲ 뇌종양, 안면경련, 중, 심차신경클리닉
		윤용한	폐암, 식도암	목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박현선	뇌종양, 사이버나이프, 뇌암, 전이성종양, 뇌동맥류, 안면경련, 경동맥질환, 중,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수,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수, (금■)					척추종양	신경외과	윤승환	* 척추종양, 사이버나이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정형외과	강준순	골종양, 인공관절, 상지,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중양내과	이동주	* 중앙, 상지, 수부, 관절염	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권대규	* 중앙, 소화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혈액암	혈액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화		방사선종양학과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조진현	혈액학, 종양학, 골수이식	월, 금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순기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1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 인하대병원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사실은 더욱 큰 사랑임을

나 혼자서만 中 / 이정하 시인

